

목포권

행정정보시스템 이용 목포시 최우수

목포시가 '2006 행정정보시스템 이용활성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포상금을 받게 됐다.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목포시는 업무활용도와 자체교육, 장애대비 모의훈련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다.

지난 2003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은 주민등록과 차량, 지적 등 21개 행정업무 중 종합 정보화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신속성 및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높이고 있다.

목포시관계자는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요점이 있따르는데 등 전자지방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은 닭·오리고기 먹는 날 무안군이 매주 수요일을 '닭·오리고기 먹는 날'로 지정하는 등 양계농가를 돕기 위한 소비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군은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닭·오리 육가공품 특별판매 행사'를 추진,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영구 임대주택 '그림의 떡'

목포지역 공급물량 감소로 입주 대기자 매년 급증

목포지역 영구 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기초수급 대상자 가운데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비율도 타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목포시가 강성희 목포시위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동 1단지 영구 임대주택 입주대기자가 지난 2004년 107세대에서 2005년 166세대, 2006년 11월말 현재 198세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상동 3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도 2004년 688세대에서 740세대로 52세대가 늘어나는

증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신규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부진한데다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기존 입주자들의 입주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상동 1단지 신규 입주세대는 지난 2004년 1년간 46세대였으나 올해엔 25세대로 줄었으며, 상동 3단지 역시 74세대에서 41세대로 감소했다. 이와 함께 여수시 기초수급자 7천547세대 가운데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는 10.5%인 792세대, 순천시 5천748

세대 중 13.7%인 790세대였으나 목포시는 기초수급자 6천553세대 가운데 14.3%인 938세대가 입주 대기중인 것으로 집계돼 기초수급자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강성희 의원은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신규 분양아파트는 중·대형 평수가 대다수여서 저소득층 주민들은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 입주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한 정부와 시의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남악신도시 아파트 입주 시작 무안군 생활민원 대책 마련



무안군이 남악신도시 아파트 입주에 대비해 다각적인 대책수립에 나섰다.

무안군은 지난달 3일부터 남악신도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지난 8일 군 상황실에서 태스크 포스트 회의를 열고 입주주민들의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를 비롯해 남악신도시 내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상하수도, 교통편의 대책 등 당면한 민원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韓銀 목포본부 中企 대출 자금 크게 늘려 상한액 10억원으로 상향

한국은행 목포본부(본부장 최춘신)가 서남권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확대를 위해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대출 운용기준을 변경,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한은목포본부는 시설 및 운전자금대출 총액이 420억원에서 635억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우선지원업체 범위를 확대 개편하고 업체별 지원 상한액도 기존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신용대출의 경우 신규취급실적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한은목포본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대출 운용기준 변경시행으로 보다 생산적인 부분으로의 자금지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급 리조트 '엘도라도' 문 열고

'남도의 보물섬'된 신안 증도

신안군 증도가 '남도의 보물섬'으로 거듭나고 있다.

생태계의 비밀을 간직한 갯벌과 아늑한 해수욕장, 최대 규모의 염전 등을 갖춘 이곳에 최근 특급 리조트 '엘도라도'가 문을 열면서 본격적인 사계절 휴양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

지난 1975년 중국 송대 유물의 대거 인양으로 일명 '보물의 섬'으로 불리는 증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육지로부터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는 지리적 장점으로 인해 관광객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왔다.

천혜의 사계절 휴양지 각광

그런 이곳에 최근 최고급 관리리조트 '엘도라도'가 들어서면서 남해안의 평범한 관광지에서 불꽃을 피워내고 있다.

토요휴무제와 함께 '웰빙'이 새로운 생활방식으로 떠오르면서, 천혜의 비경과 편안한 휴식처, 그리고 생태체험장을 함께 갖춘 증도가 멋진 휴식과 추억을 원하는 관광객들로부터 최고의 여행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도를 사육도의 지신개 선착장에서 2시간 간격으로 운항하는 철부선을 타고 15분 만에 증도에 도착하면 정동어와 칠게가 노니는 갯벌, 단일 염전으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인 태평염전, 그리고 해송 숲이 아늑한 그늘을 드리우는 우천해수욕장이 펼쳐진다.

증도 남쪽 끝 폭 100m에 길이가 4km에 이르는 우천해수욕장은 병풍처럼 둘러쳐진 소나무 숲을 배경 삼아 눈부시게 하얗고 또 밀가루처럼 고운 모래톱이 펼쳐져 있으며, 바로 옆에는 지난 7월 27일 개장한 특급 리조트 '엘도라도(061-257-0300)'가 자리 잡고 있다.

신안군이 저렴한 가격에 부지를 제공하고 한 백R&C가 건설한 엘도라도는 21동 규모의 복합 레저단지로서, 15평형과 26평형, 35평형, 43평형, 45평형 등 모두 103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 또 리조트 내에는 야외풀장과 사우나, 노천탕, 해수찜질방 등이 운영되고 있어 가족·연인들에게 최고의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다.

갯벌 전시관 등 체험시설 인기

엘도라도 인근에는 또 하나의 볼거리로서, 지구의 형성에서부터 갯벌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갯벌 생태전시관(061-260-3322)'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갯벌생물의 세계와 신안군 전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갯벌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체험시설도 갖춰져 있다.

증도를 찾아가려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무안 인터체인지로 나온 이후 무안 윤남 방면으로 가다가 신안 사육도 지신개 선착장에서 철부선을 타면 된다. 철부선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5회 운항한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영화안내 Happy Time 영화안내

메가박스 구 원동역국사거리

엔터시네마

로빈 꼬시기

콜롬버스 시네마

그해 여름

대인동상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들

정우부동산랜드 상가부지 240평

중개법인 리치부동산관리(주) 화순군 남면 대곡리 청송골

비전있는 남구, 자금이 투자의 최적이입니다

대인부동산건설링

국민공인중개사

하이링크 컨설팅